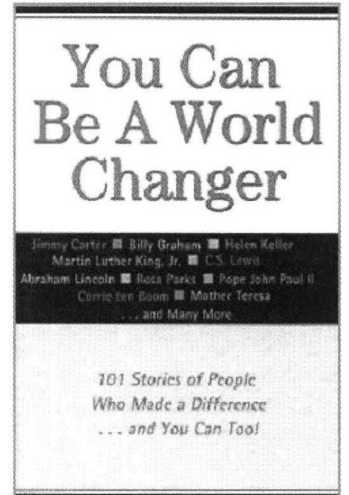




《당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세상을 바꾼 101명의 위대한 사람들

원 제_ (You Can Be A World changer)
출판사_ Honor Books



이번 호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책의 원제는 《당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Honor Books, 2003년)이다. 부제는 '변화를 이룬 101명의 사람들... 당신도 할 수 있다!'이다. 제목 한 번 진부하다. 진부하다 못해 순진해 보이기까지 한다.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짐작하셨겠지만 이 책은 이 사회와 세상에 큰 족적을 남긴 101명의 '위인'을 소개한 책이다. 책 한 권에 101명의 일생을 담다 보니 주인공들의 일생과 대표적인 에피소드를 간략하게 싣고 있다. 그리고 그 꼬트머리에는 그들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 두었다. 이런 구성 또한 진부하다. 그러나 101명의 이야기를 하나씩 읽어가다 보면 어느새 책의 제목과 형식에서 느껴지는 진부함은 자취를 감춘다.

이 책은 아쉽게도 동서는 아니지만 고금을 망라한 위대한 인물 101명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성경 속 인물도 있고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동시대인도 있다. 고귀한 신분 출신도 있고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다. 윈스턴 처칠 같은 정치가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같은 종교인처럼 위인하면 금세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자크-이브 쿠스토나 이착 펄만처럼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름이 낯선 사람도 있다. 위인전의 단골손님인 정치가, 종교가나 과학자도 있지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결코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로자 파크와 같은 유명한 인권 운동가, 메이저 리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칼 립킨 주니어, 찰리 브라운과 스누피를 그린 찰스 슈츠와 같은 만화가도 등장한다. 유명한 허쉬 초콜릿을 개발한 밀트 허쉬나 철강왕 캐네기처럼 자신의 노력으로 일군 엄청난 부를 기꺼이 사회에 환원한 사업가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잔 다르크 같은 역사적 인물도 있고 벨슨 만델라 전(前)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처럼 아직도 우리와 함께 살아 숨 쉬는 사람도 있다.

이 책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 우리 독자들에게 낯선 인물들이 적지 않다. 이름만 봐서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낯선 사람

이 많다. 그러나 101명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땀방울을 흘렸으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이들은 원대한 꿈과 장밋빛으로 빛나는 미래를 언제나 꿈꾸었다. 처음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다. 다만 무슨 일을 하던지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보니 어느새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이룬 성공은 또 다른 도전으로 이어졌다. 어찌 보면 자기계발서나 처세 관련 서적에서 강조하는 진부한 '성공의 법칙' 같기도 하다. 하지만 이 책의 교훈을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성공에 따르는 부와 명예를 향유하는 모습보다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흘린 땀방울에 더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

이 책은 어른이 읽어도 좋고 아이들이 읽어도 좋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읽어도 좋을 것 같다. 마치 101가지의 짧은 평전이나 동화책을 읽는 것처럼 내용이 쉽고 재미있다. 분명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책이지만 결코 교훈을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도 또한 이 책의 장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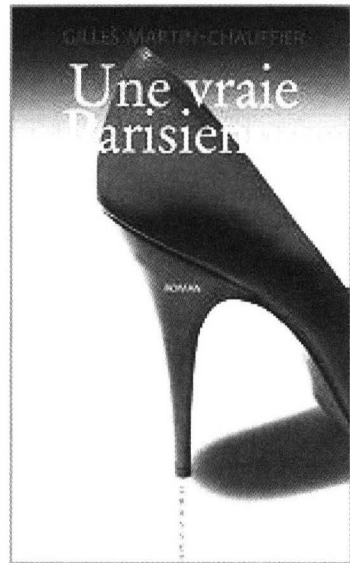
사람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이 책에는 훌륭한 인물로 소개된 사람도 분명 단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평생을 바친 연구나 사업으로 인류의 복지를 향상시켰을지는 몰라도 그 과정에서 가정을 소홀히 해 소중한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을 지도 모른다. 살아서 평생 소신을 굽히지 않아 주위 사람들과 마찰만 빚었던 사고뭉치였을 수도 있다. 이 책은 그런 부정적인 면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 그것은 전기 작가들의 몫으로 남겨 두었다. 우리는 이 책에서 한 가지만 보면 된다. 그 어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101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가는 모습을 말이다. **김**

글쓴이_ 이경애(번역가)

《진짜 파리지엔》

파리지엔, 그 해묵은 로망을 파헤치는 로망-르포

원 제 _ (Une vraie parisienne)
저 자 _ 질 마르탱쇼피에(Gilles Martin-Chauffier)
출 판 사 _ Grasset



‘진짜 파리지엔’ 아녜스 드 쿠루아는 유서 깊은 귀족 가문 출신의 40대 여인으로 아름답고 재기발랄한 데다 교양이 넘친다. 한마디로 ‘파리지엔다움’의 결정체라고나 할까. 그러나 귀족답게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돈이 풍족하지 않은 탓에 일찌감치 직업전선에 뛰어들었으니, 그 직업이란 바로 돈 많은 외국인을 위한 파리 관광 가이드. 그녀와 함께 낭만의 도시 파리를 누비고 다니는 이들은 지루할 틈이 없다. 누구든 그녀를 만나는 순간 그 미모와 재치에 홀딱 반해버리게 마련이니까.

그렇듯 그녀의 매력에 맥없이 쓰러진 이들 중엔 미국 펄계의 슈퍼스타 브루스 패어필드도 있다. 이제껏 팔려나간 음반만 해도 수백만 장에 이르고 골드디스크만 무려 30여 차례를 수상했으며 생김새가 마치 바비 케네디와 리처드 기어를 반반씩 섞어 놓은 듯 매력 넘치는 그는 순회공연차 파리를 찾는데, 음반사의 언론홍보담당이 빈틈없이 짜놓은 스케줄 속에 아녜스 드 쿠루아와 함께하는 파리 관광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몽테블로 성에서 존 갈리아노의 패션쇼장으로, 생트사펠에서 국무총리의 집무실로, 궁전에서 박물관으로 돌아치며 초호화판 파리 관광을 즐기는 사이 브루스 패어필드는 아녜스 드 쿠루아의 매력에 겁잡을 수 없이 빠져든다.

그러나 4월의 목련처럼 화사한 파리지엔 아녜스 드 쿠루아는 사실 연예계 주변의 사기꾼과 협잡꾼을 모조리 합쳐 놓은 것보다 더 교활한 여인이었으니... 뜬금없이 브루스 패어필드를 강간범으로 고발하고 만다. 그때부터 특종에 목마른 연예계 기자들과 돈에 눈먼 변호사들이 사건에 덩벼들면서 연예계라는 복마전의 실상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그

와 더불어 ‘순진한 양키’의 눈에 더없이 달콤하고 낭만적으로만 보였던 ‘늑다리 유럽’도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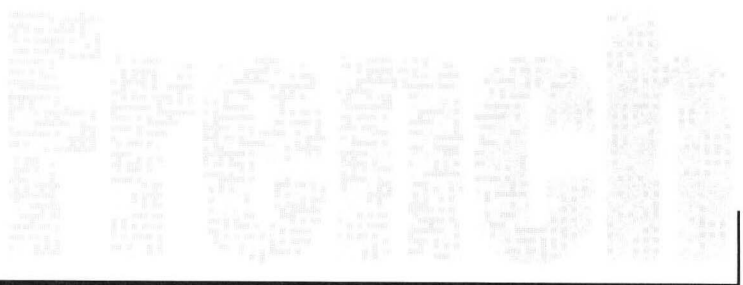
프랑스의 대표적인 연예지 <파리매치>(Paris-Match)의 편집장으로 그 누구보다 파리 사교계와 연예계의 속사정에 밝은 질 마르탱쇼피에는 현대판 《인간희곡》 같은 이 소설을 통해 스타가 특권층에 속하고 돈에 만사가 좌우되는, 법은 있으나마나 한 데다 사랑마저 계산속으로 이뤄지는 사회, 즉 오늘날의 사회를 비판한다.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입을 빌어 그 자신의 소설까지 함께 비난한다.

“그녀는 내 앞에서 줄곧 ‘소설을 써왔다’다. 처음엔 삼류 연예소설인가 싶었는데 그 트러리에 가서는 영기 범죄 소설 냄새가 풍기는 그런 소설로. 나름대로 그럴싸하긴 했다.”

이렇듯 철저한 비판 정신으로 작가는 파리와 파리지엔, 즉 낭만으로 덧칠된 로망을 철저히 파헤친다. 기자가 르포를 쓰듯, 그가 써낸 ‘파리와 파리지엔에 대한 보고서’는 신랄하면서도 재미있다. 현지 언론은 나온 지 몇 주 안 된 이 따끈따끈한 신간을 두고 다음과 같이 평가하기도 했다.

“대선주자들이 너도나도 목청을 높여대는 이 갑갑한 상황에서 한 잔의 청량음료와도 같은 책!” 

글쓴이 _ 김민정(번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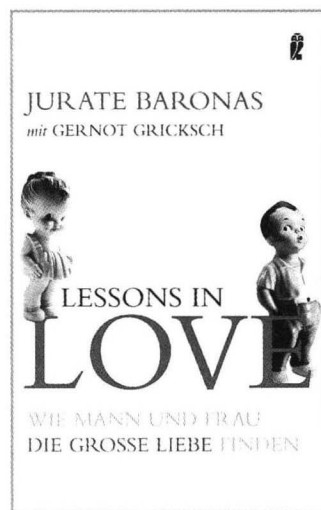




《사랑 수업》

사랑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원 제_《Lessons in Love》
저 자_유라테 바로나스(Jurate Baronas)
출판사_Ullstein
출간연도_2007년 3월
쪽 수_228쪽



최근 독일 출판 시장의 트렌드를 하나 꼽으라면, 유난히 남녀 관계에 대한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다는 점이다. 남녀 관계에 관한 책들은 상대방의 심리에서부터 성관계 문제에 이르기까지 아주 폭넓고 다양하게 출간되고 있으며, 독일 독자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

남녀 관계처럼 신비로우면서도 동시에 풀기 어려운 숙제가 또 있을까? 전혀 모르던 남매가 만나 신경전을 벌이고, 결국 서로의 반쪽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사건들이 존재하게 된다. 우리가 쉽게 '사랑'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몽둥그려버리는 여러 상황들 속에도 끊임없이 평화와 전쟁이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남녀 관계는 여러 관계 중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독자들은 다양한 책들을 통해 지금 그 오묘한 관계의 향연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만 수십만 부의 판매고를 올리며 '느림'과 '버림' 열풍을 몰고 왔던 《단순하게 살아라》의 저자 베르너 티기 퀴스틴마히는 작년 10월 《단순하게 사랑하라》(Simplify your Love)라는 책을 선보였다. '사랑도 단순한 것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이 책은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서 한국 출판사들의 엄청난 러브콜을 받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한국어판이 번역, 출간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 독일에서 출간된 《미칠 것 같은 우리 사이》(Der ganze alltägliche Beziehungswahnsinn)라는 책은 '독일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호평을 받으며 독자들에게 남녀 사이의 묘한 신경전의 원인을 밝혀주고 있는데, 부부 사이인 저자들의

넋두리가 정말 '미칠 것 같이' 재미있다.

그리고 독일판 《코스모폴리탄》 기자들이 막 선보인 이 책 《사랑 수업》(Lessons in Love)은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남자 작가와 여자 작가가 각각의 성을 대표해 변호하고 있는 이 책은 아무리 남자가 화성에서, 여자가 금성에서 온 존재처럼 서로 다른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화성이든 금성이든 모두 태양계 안에 속한 행성임을 기억하라고 전해준다. 자꾸만 '다르다'고 인식할수록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밀어내게 되기 때문이다.

이 책의 주제는 매우 거창하다. '위대한 사랑을 찾아서 떠난 여행' 그런데 과연 위대한 사랑이 존재하긴 하는 걸까? 위대한 사랑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위대한 사랑에 도달하기까지는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수없이 눈물도 흘려야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백 번 수천 번씩 찾아오게 마련이다. 신에게 서약한 위대한 사랑도 돈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며, 나이가 들수록 '사랑' 때문이 아니라 '정' 때문에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하지만 결국 여행은 떠나야 시작되는 것 아닌가? 아무리 상처 받아도 우리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새로운 여행을 떠나야 한다. 괴테의 말처럼 사랑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글쓴이_홍순철(북코스모스 에이전시 대표)

《세계지도의 탄생》

칸티노 지도에 관한 역사적 에피소드

원 제_《世界地圖의誕生》
저 자_오지 도시아키
출판사_니혼게이지샤신문출판사(日本經濟新聞出版社)



‘구글 어스’라는 온라인 지도를 가지고 놀아본 적이 있는지? 잘 찾으면 우리가 사는 아파트 건물도 보일 정도로 상당히 정밀한 위성지도사진인 구글 어스는 둥그런 지구 모양을 마우스로 속속 돌리면 어디든 지체 없이 우리 시선을 끌어다 붙여주는, 꽤 재밌는 도구다. 그렇지만 실용성이야 어쨌든 간에 잘 만들었다고 감탄을 할망정, ‘걸작이다’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세계지도의 탄생》은 제목과는 약간 다르게 세계지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보다는 오래된 세계지도-고지도에 담긴 의미나 그 의미에 걸맞은 걸작 지도란 무엇이나에 대해 쓴 책이다. 인터넷이 깔린 지금이야 지도가 공짜인 데다가 너무도 흔한 정보의 한 조각에 불과하지만, 한때 지도는 첨단 정보의 집약이었다. 배를 이끌고 나가 바다 너머 미지에 도전하던 대항해시대에는 세계지도가 국가기밀로 다루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바스코다가마의 항해로 밝혀진 인도가 그려진 ‘세계 정보’와 그곳으로 가는 항로가 그려진 당시의 첨단 지도는 포르투갈 정부에 의해 엄격한 기밀정보로 관리되었다. 그러한 지도 중 하나가 칸티노 지도인데, 재미있게도 현재 남아있는 지도는 포르투갈이 아니라 이탈리아 모데나 시 도서관에 보관된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국가기밀 지도를 누군가가 몰래 빼내 베껴고, 그것이 이탈리아로 흘러들어갔다는 얘기가. 진짜 지도는 1755년 리스본의 대지진 때 화재로 타버려 없어졌고, 현재 통칭명인 칸티노 지도의 칸티노란 것도 원본 지도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몰래 베껴낸 스파이의 이름이라는 사실에서도 역사의 유머를 느끼게 된다.

책에 실린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지도인 ‘훈일강리역대국’ 또한 원본은 모두 사라지고 네 개의 모사본만 일본에 있다고 하니, 칸티노 지도처럼 당시 첨단 정보였던 지도의 운명이란 비슷했던 것인가 싶다.

여하튼 저자는 칸티노 지도에 ‘걸작’이라는 평가를 붙이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책의 앞부분에서 면밀히 설명한다. 즉 지도를 평가하는 네 가지 기준에 대한 것이다. 그 첫째는 사상성. 현실을 축소하여 지도를 만들 때, 거기에 무엇을 골라 담고 무슨 얘기로 채우느냐 하는 제작자의 주장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예를 들자면 구글 어스의 위성사진 같은 것에는 아무런 주장이 담겨 있지 않으므로 걸작이 못된다는 얘기가. 둘째는 예술성. 구불구불 무미한 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명확함과 아름다움이 담겨야 훌륭한 지도라는 말이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기능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예술성이라고 부를 만한 아름다움을 가진 지도는 사라졌지만, 중세 지도 중에는 그런 아름다움이 존재했다고 한다. 셋째는 과학성. 정확성이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도 있는 이 조건은 지도의 본래 목적을 생각할 때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다. 넷째는 2미터를 넘지 못하는 인간의 시각적 제약을 넘게 만들어주는 기능성을 들고 있다.

칸티노 지도에 관한 역사적 에피소드와 저자의 애정이 담긴 찬사도 흥미롭지만, 사실 앞부분에 서술된 네 가지 안목이야말로 이 책의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다만, 학교 때 보던 사회과부도나 인터넷 지도를 빼면 큼직한 세계지도, 특히 저자가 거론하는 중세의 세계지도는 어디를 가도 보기 힘든 판이어서, 애써 지도를 보는 안목을 배워 놓고도 제대로 지도를 감상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는 점이 유감스럽다.

어린이들의 꿈이 대통령, 하다못해(?) 과학자 같은 거창한 것이었다가 나이를 먹으면서 9급 공무원 같은 것으로 쪼그라들 듯, 어렸을 때 세계지도를 붙여 놓았던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 어른이 되면서는 손바닥만 한 네비게이션이나 신경을 쓰게 된 현실이 책을 덮으면서 슬쩍 떠오른 것은 내용과 무관한 개인적인 감상이겠다. **★☆☆**

글_윤덕주(번역가, (주)엔북 대표)